

올림픽 D-22 메달 기대주 ⑥ 유도 왕기춘



지난 3월 18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2008 국기대표 2차 선발전' 남자 73kg급 결승전에서 왕기춘(위)이 이원희(아래)를 공격하고 있다. 왕기춘은 연장전 끝에 되치기로 효과를 염두에 이원희를 놀렸다. /연합뉴스

"시상대에 오른 모습 취침前 꼭 그려보죠"

"자기 전에 항상 올림픽 시상대에서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베이징올림픽 유도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힘하는 남자 73kg급 왕기춘(20·용인 대)은 장난기가 많을 것 같아 생긴 인상대로 인터뷰도 재미 있게 잘 하기로 유명하다.

"혹시 올림픽을 앞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전마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 "2등, 3등한 나라 국가까지 머리 속에 그려가며 올림픽 최고의 순간을 떠올린다"며 웃어보였다. 2 등은 아제르바이잔, 3등 자리에는 일본 국가가 올라가더라는 것이 왕기춘의 농담 반 진담 반이다.

그러나 장난기 섞인 재미있는 인터뷰가 가볍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삼고 10년 넘게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 목표를 이를 때리는 생각에 부담이나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10년이 더 됐다"는 말에 "처음 유도를 시작할 때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꿈꿨느냐"고 묻자 "아니다. 유도는 1995년에 시작했고 올림픽 금메달 목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부경 선배의 모습에 반해 갖게 됐다"고 답하더니 이내 "아직 8년밖에 안 됐네"라며 스스로 당황해 한다. 언뜻 보면 명랑만화 캐



릭터 같기도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왕기춘은 "그렇게 죽도록 올림픽 금메달만 바라보고 운동을 했는데 아직 10년이 안 됐네요"라며 또 근엄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다.

만 20세 어린 나이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유도와 함께 한 왕기춘은 지난 해 유도에서 단맛과 쓴맛을 두루 경험했다.

5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첫판에 일본 선수를 만나 하판으로 져 탈락했지만 9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며 명예 회복을 해냈다.

또 올해 5월에는 이 체급에서 올림픽 2연패를 노리던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27·한국마사회)를 제치고 올림픽 티켓까지 따냈다. 성공의 단맛만 봤던 선수라면 경영 부족이 큰 단점으로 지적될 만도 하지만 아시아선수권 초반 탈락이라는 바닥도 체험해 봤던 선수라 올림픽 무대도 믿고 맡길 만 하다.

요즘 하루 세 차례 훈련에 왕기춘의 몸에서는 땀이 마를 새가 없다.

왕기춘은 "남은 기간에 기량 연마는 물론 마인드 컨트롤에도 신경을 써서 꼭 주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장미란 올림픽 금 예약

한국 여자 역도의 간관 장미란(25·고양 시청·사진)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사실상 예약했다.

장미란의 최대 라이벌 무상창(24·중국)이 베이징올림픽 출전 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역도연맹은 16일 "중국 역도 대표팀이 국제역도연맹(IWF)에 통보한 베이징올림픽 출전 체급 가운데 장미란이 출전하는 최종량급(+75kg)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WF는 세계 각국 역도연맹으로부터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 명단을 미리 전달받았는데 역도연맹은 비공식 라인을

최다 퀴터인 10장을 확보했다. 그러나 장미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연패를 차지한 여자부 최종량급은 메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끝내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IWF에 보낸 자료에 '출전 체급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연맹은 올림픽 출전 예정자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장미란은 무상창이 출전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IWF 세계랭킹 3위인 올라 코로브카(우크라이나)보다 공식 대회 합계 기록에서 무려 26kg이나 앞서 사실상 금메달이 확정적이라 할 수 있다.

최대 라이벌 中 무상창

올림픽 출전 포기따라

역도 75kg급 우승 가능화

통해 이를 확인했다. 연맹에 따르면 중국은 여자부의 경우 48kg급과 58kg급, 69kg급, 75kg급에 선수 4명을 내보낸다고 IWF에 통보했다.

베이징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자동 출전권을 따낸 중국은 여자 4장, 남자 6장 등

이건희 회장 IOC 위원 자격정지 권고 예상

조세포탈 혐의 유죄 선고따라

올림픽 앞두고 또 다른 악재

한국 스포츠가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또 다른 악재에 휩싸였다. 한국의 유일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66·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한후 국제무대에서 스포츠 외교력이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IOC는 자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위원에게는 가차 없이 징계를 내렸다. 2001년 취임 이후 IOC 위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견지해 온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2005

년 프랑스의 기 드류 위원과 2006년 박용성 위원에게도 각각 일시 자격정지를 내린 전례가 있다.

박용성 회장은 2006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받자 IOC에서 곧바로 자격 정지됐으며 2007년 2월 국내에서 특별 사면받은 뒤 IOC에서 복권됐었다. 그 후 박용성 회장은 지난 해 9월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IOC 위원직도 상실했다.

사건을 조사중인 IOC 윤리위는 법원 1심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자격정지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권고를 받은 IOC는 8월 2일~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번이 없다면 이건희 위원에게도 일시 자격정지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탁구협 조양호 회장 추대키로... '제2 전성기' 기대



탁구협 조양호 회장 추대키로... '제2 전성기' 기대

탁구 전성기를 주도했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못지 않은 재계의 실력자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등을 거느린 항공 기업으로 세계 순위 10위권 대기업이다. 조양호 회장이 침체에 빠진 한국 탁구를 중흥 시킬 '구세주'로 여겨지는 건 당연시다.

최원석 전 회장 시절이던 1980~90년대는 전폭적인 지원 속에 한국 탁구가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2008 베이징올림픽이 코 앞으로 다가와 당장 전력이 급상승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협회가 안정되고 선수들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레슬링, 올림픽 8연속 금메달 향해
16일 서울 태릉선수촌 필승관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레슬링 국가 대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무비힐화관

여수시 공화동 구세종각호텔 뒤편 4거리
사주, 궁합, 작명, 택일
사업문, 매매문, 사업문
☎(061)662-5130

네비게이션 A/S센타

광산구 도전동 하남공단 8번로 입구 맞은편
모든 네비게이션 기종
업데이트 및 A/S 전문점
☎(062)954-9974-5

용두동우체국

북구 용두동 양산타운앞
우편, 택배 접수등 각종 우편업무
국장 김 장 문
☎(062)571-2151

동남부동산

서구 쌍촌동 명지 맨션앞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매매 및 임대 전문
대표 이 경 자
☎(062)371-9773

한솔약국

서구 쌍촌동 광주은행 쌍촌지점옆
병의원 처방 조제 전문
대표 진 미 경
☎(062)381-4210

우소웃소청정고기전문점

북구 매곡동 두레건강랜드 옆
매운탕·짜장면·우거지·짜장면·오늘포크지점
대표 김 정 관
☎(062)575-9592

김성욱한의원

남구 서동 KBC방송국 건너 대성교회 4거리 2층
비염, 성장물리치료, 교통사고 추나요법, 화병
원장 김 성 익
☎(062)675-7510

(주)한서차이나공사

서구 회정3동 출입국관리사무소 4거리
비자, 중국인초청, 한중결혼
번역공증, 인증, 중국전문법무회사
☎(062)251-1818

갈비어천가

북구 오치동 고향부페 맞은편
갈비삼겹살 4,300원 등 갈비찜 단체손님환영
대표 조 영 철
☎(062)268-9282

심청재가장기요양기관

북구 각화동 삼성홈플러스 뒤편 맞은편
제2기장기요양원 수요집접수·상담문
대표 임 동 래
☎(062)264-7748-9

더 자연

서구 쌍촌동 금호자구원 아비동감자점 건너편
천연염색 친환경 쟁기류, 생활, 개량한복
천연염색 의류, 아동한복, 흰수상점
원장 김 정 일
☎(062)385-4554

SK텔레콤(엘코리아대리점)

서구 화정4동 염주4거리 서광주 세무서 옆
남구 봉선동 리인호프 @3거리 코너
동구 산수동 산수5거리 산정입구 코너
☎(062)375-3300

웨딩세라비

남구 구동 KBC방송국 건너편
결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토탈
대표 박 권 주
☎(062)672-7176

예사데코

서구 화정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 4거리
케이·브리인드, 홀도어, 엘레강스, 베어클, 스코리
화장공사, 벽지, 장판, 페인트, 조명, 디자인, 일상 생활
대표 박 권 주
☎(062)284-5110

회락

북구 오치동 오치삼익 2차
한우찌개, 담양찌개, 양송주정생선, 맥주찌개
점심식사 메뉴 절반값 할인
대표 이 희
☎(062)226-1092

골든공인증개사

광산구 월계동 두산1차 105호
아파트, 상가, 토지, 매매, 임대 수시 접수
대표 노 흰 의
☎(062)973-0461

B&A인테리어

남구 주월동 구대동 고건너 백운주유소 옆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 실내건축공사
토털인테리어, 벽지, 장판, 테코타일, 윤실공사
☎(062)653-0712